

광주, 수능 11년 연속 상위권 국·영·수 모두 전국 2~3위

2015 수능 성적 분석 결과

특목고 많은 제주에 1위 내줘

광주지역 고등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이 제주를 제외하고 11년 연속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제주 수능 응시생이 5000명에 불과해 사실상 광주가 전국 1위를 차지한 셈이다. 하지만 영역별 1등급 비율 순위는 다소 하락했다.

반면 최하위권이던 전남은 표준점수 평균이 영역별로 1~5계단 뛰어오르며 중위권 진입의 청신호를 밝혔다.

〈관련기사 7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8일 발표한 2015학년도 수능(2014년 11월 13일 시행) 성적을 분석한 결과, 광주는 수험생의 학력 수준을 보여주는 표준점수 평균이 국어·영어·수학 모두 2~3위를 기록했다. 전 영역에서 1위는 제주가 차지했다.

광주지역 전체 학생 1만6131명의 평균 표준점수는 국어A형 102.7점(3위), 국어B형 101.7점(2위), 수학A형 103.3점(2위), 수학B형 105.5점(2위), 영어 102.1점(3위)으로 전국 평균보다 최대 6.3점 높았다.

하지만 전년도보다는 순위가 후퇴했다. 광주는 전년도 수능 6개 영역 중 국어B, 수학B, 영어A·B형 등 4개 영역에서 제주를 제치고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모든 영역에서 제주에 밀렸다.

최상위권인 영역별 1등급 비율은 전년도 2~4위에서 지난해 2~5위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1등급 비율은 4.2%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수학A형(6.7%)은 제주·서울에 이어 3위였고, 수학B형(3.5%)은 서울·울산·경기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국어A형(4.2%)은 제주·서울·전북에 이어 4위, 국어B형(3.9%)은 서울·대전·충남·강원에 이어 5위에 랭크됐다.

■ 수능 '실력 광주' 성적

순위	과목
2위	국어A, 수학A, 수학B
3위	국어A, 영어

※ 전년도 국어B, 수학B, 영어A·B 등 4개 영역 전국 1위

〈표준점수기준, 전국 17개 시도〉

최근 5년간 1등급 비율 순위를 보면 국어A형(이과) 2→5→3→4→4위, 국어B형(문과) 2→5→3→4→5위, 수학A형(문과) 3→5→3→4→3위, 수학B형(이과) 2→2→3→2→4위, 영어 2→5→4→2→2위다. 수학A는 전년도보다 한 계단 올랐고, 국어B와 수학B는 한두 계단 내려갔다. 국어A와 영어는 순위가 유지됐다.

광주는 수능 성적이 공개된 2005년 이후 7년 연속 수능 1등급 비율이 모든 영역에서 1~2위를 차지해 최상위권을 유지하다가 2012년 5위권으로 추락했다. 2014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실력 향상에 힘입어 상위권으로 복귀했으나 서울과 제주의 벽은 넘지 못했다.

서울 주요대학 진학이 가능한 1등급과 2등급 비율을 합한 경우에는 국어A형 12.3%(4위), 국어B형 11.4%(4위), 수학A형 14.2%(3위), 수학B형 12.4%(2위), 영어 11.5%(3위)를 기록해 국어A·B, 수학A, 영어영역에서 한 계단씩 떨어졌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수능 상위권(1~2등급) 비율은 전년도보다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이 커지면서 수능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어 교과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수험생의 표준점수 평균은 국어A형 98.6점(15→10위), 국어B형 98.3점(14→10위), 수학A형 98.8점(13→14위), 수학B형 92.5점(16→15위), 영어 97.3점(16→14위)으로 전년도보다 크게 향상됐으나 여전히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선거 때 지역감정 조장하면 당선무효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의결... 여론조사 왜곡보도 처벌 강화 與野, 국회의원 300명 유지 합의... 지역구·비례 수 획정위에 위임

여야는 18일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관련기사 4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공식선거법심사소위원회(위원장 정문헌)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현행 300명 정

수를 유지하는 데 잠정 합의하고 오는 20일 소위를 다시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 전체회의로 넘길 방침이다.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현행법대로 299명 플러스 부처에 1명 그것대로 (한

다)"라며 "299명인지 300명인지는 한 번 더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위는 특히 지역구 의원 숫자와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얼마로 배분할 것인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일괄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식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누구

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해서는 안 되며 이를 여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몰도록 해 심한 경우 당선무효에 이를 수도 있도록 했다.

정개특위는 또 선거운동 기간 언론사 홈페이지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리려면 실명 인증을 받아야 했던 '인터넷 실명확인제'를 폐지하는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정개특위는 선거 과정에서 각종 허위 의혹이 제기됐을 경우 후보자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선관위가 허위 여부를 판명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 여론조사 결과 왜곡보도 등 허위 여론조사를 공표했을 때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의결했다. 특히 언론인 등이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왜곡사실을 보도할 경우 현행보다 처벌 수위를 높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체적인 허위사실 공표사항에서 '인격'을 삭제하는 대신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가족관계' 항목을 추가했다. 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내용들은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노인타운 수강신청 행렬

18일 오전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체육관에서 '2015년 제3기(9~12월) 사회교육프로그램' 희망과목을 접수하려는 어르신들이 줄지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은 20일까지 103과목 308개반 수강생 1만3466명을 모집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2016학년 광신대학교

학부 신입생 수시모집
신학과, 국제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음악학과, 실용음악학과
원서접수 9.9(수) ~ 9.15(화)
전형일 10.2(금) 문의 (062)605-1114

광주, 시간 속을 걷다



1960 청원모듬 ▶ 18면

수완지구 등 시내버스 사각지대 없앤다

광주시, 노선개편 전담팀 구성·운영... 2017년 6월 전면 시행

광주지역 시내버스 노선이 2017년 6월부터 전면 개편된다.

시는 광주시민의 교통카드 이용 패턴 등이 담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직장인 출퇴근과 학생 등하교 시 수요분석, 도시철도 2호선 연계, 급행 간선 및 급행버스 도입 등 최적의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광주시가 노선 전면 개편에 나선 것은 지난 2006년 말 준공예정 시행에 따른 전면 개편 이후 10년 만이다. 이는 그동안 수완·첨단·선운·효천·하

남지구, 진곡산단 등 도심 외곽으로 신흥 택지개발이 집중 이뤄지고 있지만, 이들 지역의 늘어난 인구 대비 버스노선 등은 제대로 증설되지 않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선 6기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위한 전담팀(TF팀)을 최근 구성, 노선 개편이 마무리될 때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전담팀은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을 팀장으로 대구시와 대전시의 버스관련 부서 공

무원, 교수, 시민단체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전담팀은 용역 시행에 앞서 시내버스 노선개편 연구용역의 추진 방향과 과업 설정, 대중교통 주요 현안 분석, 노선개편에 따른 기초 연구를 맡게 된다.

특히 수완·효천지구 등 신도심과의 접근성, 고속철도(KTX)와 도시철도 2호선과의 연계, 주요생활권 및 교통 사각지대 대중교통 체계 최적화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또 시내버스 노선별 수익성 분석, 요금 체계, 공차거리 등 준공예정 발전방안도

다를 예정이다.

광주시는 실질적 노선을 조정하는 용역은 오는 11월 발주, 내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개편 노선은 공청회와 교통정책심의 등을 거쳐 2017년 6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광주지역 운행수단별 승수 분담률은 버스가 35.6%로 시민 3명당 1명이 이용하고 있다. 1일 이용객은 평균 45만여 명이다. 승용차가 39.6%로 가장 높고 택시 14.2%, 지하철 2.8%, 보행·자전거 등 기타 7.8% 순이다. /박진표기자 lucky@

나의 취향에 맞춘 단 하나를 찾다.
The A-Clas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 / Tel. 062)226-0001

• A180 CDI Style 1,461cc 1445kg, 7단 듀얼 클러치, 복합연비 19.3km/ℓ (도시연비: 17.1km/ℓ, 고속도로연비: 22.7km/ℓ), 1등급, 복합CO₂ 배출량 99g/km
• A45 AMG 4MATIC 1,991cc 1590kg, AMG SPEEDSHIFT DCT 7-speed, 복합연비 10.1km/ℓ (도시연비: 9.0km/ℓ, 고속도로연비: 11.8km/ℓ), 4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75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용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